

속뜻은 물결

통권 292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01 2024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2월 1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하라!



12월 15일부터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1인 시위



“서산공항예타 피해 추진하는 충남도, 속이 뻘히 보이는 편법”

- ▶ 발행일 2024. 1.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유형민
- ▶ 편집위원 팽말숙,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신년인사**
|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4 **사진으로 보는 2023년**
|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주요 활동

8 **지역환경이슈1**
|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하라!

10 **지역환경이슈2**
| 12월 15일부터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1인 시위
| 계성초 4학년 아나바다장터 수익 당진환경연합 기부

11 **충남환경이슈**
| “서산공항 예타 피해 추진하는 충남도, 속이 뻘히 보이는 편법”

12 **전국환경이슈**
| ‘화석상’ 받은 한국, ‘단계적 퇴출’의 퇴출...COP28

13 **만화로 보는 ‘멈춰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9 **12월 살림살이**

20 **12월 활동소식**

22 **1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 창 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갑진년 푸른용의 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진의 소중한 자연도 함께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여름 탄산음료 과다섭취 등으로 혈당수치가 500이상으로 오르고 몸무게가 15kg 이상 급격하게 빠지면서 입원을 요할 상황까지 갔다가, 약 처방을 받고나서야 혈당도 점차 낮아지고 몸무게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마치 작년여름의 제 몸 상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가 태어나고 성장해온 이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지구의 평균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갔고, 획기적인 처방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지고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류멸종의 위기를 대비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좀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당진지역의 환경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면서 당진의 환경을 지키고, 넓게는 지구를 살리는,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생존을 지켜가는 일들을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나갔으면 합니다.



1월

석탄화력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관련 기자회견

1월 3일 서천, 1월 12일 보령에서 석탄화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보고에서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월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2월 20일 메가페밀리뷔페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월

물의를 날기념 석문호 해수유통 캠페인

3월 18일 물의를 날기념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당진시민들이 석문호 해수유통 캠페인과 해변정화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4월

지구의날기념 당진천걷기행사

4월 15일 지구의날을 맞아 당진천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구에게 한마디 나뭇잎 달기', '재생에너지 바로알기 퀴즈'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5월

다함께우리바다 쓰담쓰담

5월 20일 석문방조제에서 당진시민들과 함께 해변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6월

민자산업단지 추진 관련 기자회견

6월 5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시공사로 하는 민자 산업단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월

노후 보령 화력 5,6호기 지금 당장 조기 폐쇄

7월 6일 보령화력발전소 앞에서 노후 보령화력 5,6호기 지금 당장 조기 폐쇄 하라며 자전거 행진과 도보행진에 당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전국행동

8월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해 서울 전국행동에 참여했습니다.



9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기후정의 행진

9월 23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장항선을 타고 서울 세종대로에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10월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밤

10월 23일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전환사회로'라는 주제로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밤을 진행했습니다.



11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 규탄 기자회견

1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폐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은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2월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규탄 기자회견

12월 18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하라!



지난 12월 18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현대제철이 탄소중립을 핑계로 전기요금을 절감해 이윤을 높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현대제철이 화석연료 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에 기반한 올바른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추진 투자 계획에 의하면 당진제철소를 고로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부생가스 발전과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CDQ) 발전이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전력수요가 증가하므로 전력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당진제철소에 499MW 규모의 자가 LNG발전소를 건설해 2028년 가동을 시작하고 2050년까지 수소발전설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은 친환경전력이 아니다. LNG발전은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45%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동시에 막대한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이다. 현대제철에 LNG발전소가 건설되면 당진에 또 하나의 대규모 온실가스, 대기오염 배출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현대제철은 LNG발전소 건설 이유를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보다 자가 LNG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전력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는 현대제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LNG발전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할 2030년 이후는 거꾸로 자가 LNG발전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상황이다. 2018년에는 전체 발전량 중 온실가스 배출 발전원이 68.7%(석탄 41.9%, LNG 26.8%)를 차지했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에는 42.9%(석탄 19.7%, LNG 22.9%)로 줄고 2036년에는 23.7%(석탄 14.4%, LNG 9.3%)로 줄어 시간이 지날수록 한전 수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제철은 부생가스와 CDQ 자가발전량 감소를 LNG발전 건설 이유로 들었으나 LNG발전 가동은 2028년에 시작하는 반면 정작 스스로 밝힌 계획에서 자가발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0년 중반 이후이고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은 2040년 이후이다.

한전의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 현실화 요구가 높아졌고 얼마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현대제철이 사실과 다르며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자가 LNG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탄소중립을 핑계로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며 또 하나의 그린워싱 사례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쉽게 화석연료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업 이익을 높이겠다는 현대제철의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수소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당진에 환경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당진에는 이미 9,300MW가 넘는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당진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지역이다.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화력발전소를 더이상 건설해서는 안 된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현대제철에만 이익이 될 뿐 지역의 부담을 가중시킬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을 막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대제철은 화석연료 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라.
-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로 올바른 탄소중립 추진하라.

2023년 12월 1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12월 15일부터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1인 시위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1인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이어 12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널 로터리에서 사무국 활동가들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12월 26일(월) 오후 2시에는 임수진 운영위원과 박은정 사무차장이, 12월 29일 오전 11에는 손창원 공동의장, 황성렬 운영위원, 이월 회원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12월 15일(금)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구터

[글: 사무국]

계성초 4학년 아나바다장터 수익 당진환경연합 기부



12월 21일 계성초등학교 초록수비대 학생들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12월 21일 계성초등학교에서 손창원 공동의장과 박은정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계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모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것이다.

계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초록수비대라는 이름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중고물품을 판매한 수익금 중 1백만원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하며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써달라는 뜻을 밝혔다.

[글: 사무국]

“서산공항 예타 피해 추진하는 충남도, 속이 뻘히 보이는 편법”



지난 12월 21일 기후위기충남행동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산공항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가 사업비를 줄여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남의 환경단체들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는 방식은 속이 뻘히 보이는 편법”이라며 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기존) 532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조정됐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예타를 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8년까지 서산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대비편익)이 0.81로 나왔다고 밝혔다. B/C가 1보다 낮을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기후위기충남행동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략)“항공기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수단임을 고려할 때 충남도는 서산공항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공항 건설, 기후위기 역행”

황성열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중략) “기후위기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이다. 기후위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송, 항공분야이다. 유럽도 항공을 줄이고 기차와 대중 교통으로 바꾸고 있다. (중략) 하지만 유독 한국만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략) 서산공항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중략) 서산공항 문제는 주로 선거 때 나온다.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해선 안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민항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서산 공항 꿈수 추진 논란과 관련해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꿈수는 아니다. 불필요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 것”이라며 “예타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요를 찾아서 경제성을 높였다는 측면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화석상’ 받은 한국, ‘단계적 퇴출’의 퇴출…COP28



COP28에서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한 한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1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중략) 이번 회의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예정된 회의 폐막을 하루 늦추고 밤샘 협상을 벌여 (중략)2030년이 되기 전까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중략)

①예상치 못한 개막 첫날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중략) 이번 당사국총회 첫날 개막식에서 아흐마드 자비르 의장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문 채택을 선언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작동시키는 문제는 (중략) 핵심 의제의 하나였다. (중략)

②회의장까지 미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 (중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회의장까지 이어졌다. (중략) 정상회의 연설에서 요르단, 터키 등은 이스라엘을 맹비난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도 (중략) 희생자들을 기리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③지명할 때부터 이어진 ‘석유 재벌’ 의장 리스크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중략) 이 발언은 당사국총회를 주도해야 하는 아흐마드 자비르 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중략) 논란이 일자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해가 있었다”, “과학을 매우 믿고 존중한다”는 발언으로 수습에 나섰다. (중략)

④한국 기후위기 걸림돌 인증, ‘화석상’ 첫 수상 6일 (중략)한국이 캐나다 앨버타주와 노르웨이에 이어 3등으로 수상한 ‘오늘의 화석상’은 (중략)후행동네트워크(CAN)가 이른바 ‘기후 악당’들에게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상이다. (중략) 화석연료인 가스 확대를 위한 한국의 ‘헌신’을 수상 이유로 꼽았다. (중략)

⑤미뤄진 폐막식, 퇴출당한 ‘단계적 퇴출’ (중략) 이번 회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화석연료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중략) 그 결과 (중략) 최종 합의문은 (중략)“(온실가스 감축에) 결정적인 10년 안에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한겨레 일부 발췌]

멈춰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글/그림 박흥렬 감수 김해창 제작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CRDN)

4. 뻔뻔한 일본의 용역업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달라고

우리가 정한 기준 안에서 과학적 검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검증을 했다는 일본의 말을 믿어요

일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 나는 핵오염수 방류 환영

어려구니 없지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교와 검증도 거부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져눴스라고 몰아부치고, 자기를 맘만 옳다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과학을 방자한 뒷뒤리에 불과해요

방사성 물질이 자연환경에 한번 방출되면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과 물, 해류를 타고 국경을 넘어 무리멸적으로 만개로 이동하고,

방사성 오염수 이동 경로

5~10년 후 한반도에 도달

원자력 오염수 투기

오이시오

북태평양해류

북적도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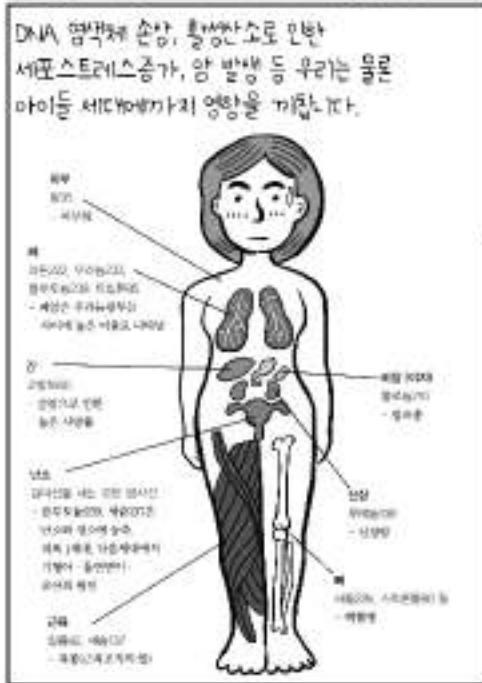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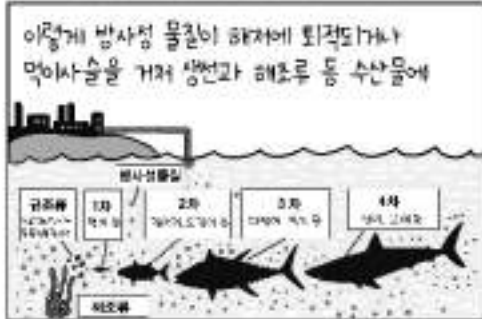
남적도해류

미국

캘리포니아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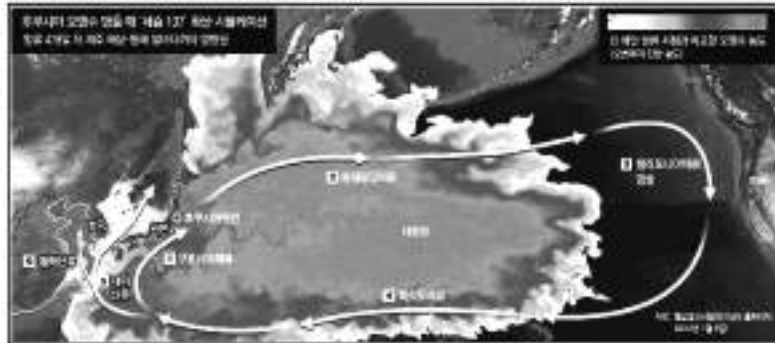
선박들은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 균형을 잡는데 이것을 평형수라고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면 평형수가 연간 100억톤 가량 되는데, 평형수에 실려 들어온 지중해, 홍합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 처럼, 평형수는 해양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꼽힌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해양 생태계에
방사능이 축적되어,
죽음의 바다가
되기 전에,



또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산물 이력제〉강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 지원책 마련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적인 문제임으로 한일 양국 시민은 물론,



국가간 공동 대응, 국제사회와 연대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핵발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탈핵 안전사회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우리가 멈추게 합시다!
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12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 수 입 | | | 지 출 | | |
|--------|--------|------------|-----------------|----------------|------------|
| 항 | 목 | 금액 | 항 | 목 | 금액 |
| 이월금 | 전월 이월금 | 30,809,148 | 인건비 | 급여 | 4,600,000 |
| 회 비 | 개인회비 | 5,000,000 | | 퇴직적립금 | 415,280 |
| | 법인회비 | 120,000 | | 사회보험료 | - |
| | 계 | 5,120,000 | | 계 | 5,015,280 |
| 일반후원금 | 개인후원 | 1,214,510 | 경상비 | 복리후생비 | 64,000 |
| | 법인후원 | - | | 세금과공과금 | 91,130 |
| | 계 | 1,214,510 | | 소모품비 | 15,300 |
| 사업후원금 | 사업후원금 | - | | 지급수수료 | 311,290 |
| | 계 | - | | 기타운영비 | 168,900 |
| 단체지원금 | 단체지원금 | - | 계 | 650,620 | |
| | 계 | - | 사업비 | 기후에너지사업 | - |
| 보조금 | 기타사업 | - | | 생태보전사업 | 171,000 |
| | 계 | - | | 생활환경사업 | - |
| 지원금수입 | 지원금수입 | - | | 조직 회원사업 | 1,437,480 |
| | 계 | - | | 모금사업 | - |
| 기타수입 | 기타수입 | 12,007 | | 연대사업 | 572,103 |
| | 계 | 12,007 | | 기타사업 | - |
| 전입금 | 전입금 | - | 계 | 2,180,583 | |
| | 계 | -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 |
| 차입금 | 차입금 | - | | 계 | - |
| | | 계 | - | 이월액 | 이월액 |
| | | | 계 | | 29,309,182 |
| 월수입 총계 | | 6,346,517 | 월지출 총계 | | 7,846,483 |
| 수입 합계 | | 37,155,665 | 지출 합계 | | 37,155,665 |



재생에너지확대 시민포럼 수상태양광 보령호 견학

12월 4일 기후위기충남행동은 재생에너지확대 시민포럼 수상태양광 보령호 견학에 다녀왔습니다.



12월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12월 6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의 겸 고문단과 함께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충남 정의로운전환 포럼 사회적대화종합 토론

12월 12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석탄화력발전 지역 정의로운전환 사회적대화 결과를 통한 제언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역 참여 방안 모색 토론회

12월 13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포럼 다섯 번째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역 참여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철강부문 탄소중립 과제 연구 세미나

12월 13일 스피라스리움에서 2023년 탄소중립 미래기술 컨퍼런스 '철강 부문 탄소중립 과제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제철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연대방문

12월 28일 현대제철 앞에서 당진환경 운동연합 회원들이 현대제철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연대의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01 일반사업

- ❖ 1/03 당진환경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05 석면해체 사전청소 모니터링 - 석문중학교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1/09 석면해체 보양 모니터링 - 석문중학교
- ❖ 1/11~1/12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총선대응 워크숍 - 보령
- ❖ 1/11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대전NGO센터
 당진시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1/12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 ❖ 1/15 석면해체 잔재물조사 모니터링 - 석문중학교
- ❖ 1/19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 ❖ 1/24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사무실
- ❖ 1/25 2024 기후전망 워크숍 - 온라인
- ❖ 1/26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 ❖ 1/30 당진환경연합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31(수)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자가 LNG발전소 건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정윤진(서울)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보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혜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분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희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승

※ 1월 4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운영회원을 신청해주세요!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서 총회 참석의 의무와 의결권을 가지는
운영회원으로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1월 30일까지**
아래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사)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세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회원님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저녁 6시 30분
- 장소** 당진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안건** 사업평가 및 결산,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 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로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안내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3년 1월1일~12월31일 회비, 후원금 납부 또는 물품후원을 한 회원 및 후원자

◇ 발급방법(자원절약과 발송비 절감을 위해 일괄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2024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개별 우편발송은 041-355-7661로 신청해주세요.

